

소나무와 참대, 해당화



Pine, Bamboo, Sweetbrie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외국문출판사
주체108(2019)년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DPRK
Juche 108 (2019)



사철푸른 바늘잎나무인 소나무는 조선의 북부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해발높이 800m 아래의 넓은지역에서 자라고있다. 높이는 20~30m, 직경 60cm정도이며 줄기는 보통 구불구불한것이 특징이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사시장철 푸름을 잃지 않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억세게 자라는 소나무의 기상을 민족의 상징으로 간직하여왔다.

이러한 력사속에 오늘 소나무는 조선의 국수로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Pine tree, an evergreen conifer of the family *Pinaceae*, grows on a vast area below 800m above sea level except the northern highlands of Korea. It is 20-30m tall and 60cm in diameter. It has furrowed bark. The Korean people have long regarded the pine tree, which is viable and evergreen, as a symbol of the unflinching spirit of the nation. At present, the pine tree has struck its root deep in the hearts of the Korean people as the national tree of Korea.



벼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인 참대는 조선의 중부와 남부 해발 600m의 마을부근에서 자란다.

높이는 10~20m까지 곧추 자라고 직경은 5~15cm이며 대와 잎은 윤기나는 풀색이다.

사철 푸르며 불에 라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는 예로부터 나라를 위해 충성다하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간주해온 조선인민에게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굳은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되어왔다.

Bamboo is a perennial grass of the family *Poaceae* and grows in the middle and southern areas of Korea below 600m above sea level. It grows 10-20m upright and measures 5-15cm in diameter. Its culm and leaves are glossy green. It is evergreen and remains straight even though it is burnt. The Korean people who regarded it as the most honourable to be loyal to the country have made the bamboo as the symbol of unflinching fidelity.



장미과의 잎지는 넓은잎떨기나무인 해당화는 조선의 북부 높은 지대를 제외한 바다가 모래땅과 산기슭에서 무리지어 자란다.

바다가 모래불에 뿌리를 내리고 모진 해풍속에서도 지지 않고 향기를 풍기는 해당화는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과 유정한 향기로 하여 조선인민의 사랑을 받고있다.

Sweetbrier is a broad-leaved deciduous shrub within the family *Rasaceae*. It grows in groups on sandy beaches and hilly areas except the northern highlands of Korea. As it strikes its roots deep in sandy soil and remains beautiful and fragrant even in strong sea wind, the Korean people are very fond of the sweetbrier.

